

(圖 1) 일간신문에서는 뉴스의 초점이나 사고지점등이 간단한 線으로 묘사되어 삽입된다.

계성이 부족하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많은 지도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지리부도 혹은 지도첩(Atlas)에서 조잡하게 복사되거나 개작되므로 신문지도제작은 때때로 평범하다. 지도제작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의 대도시 일간지는 직업적인 유능한 지도제작자나 이 분야의 삽화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질의 지도를 출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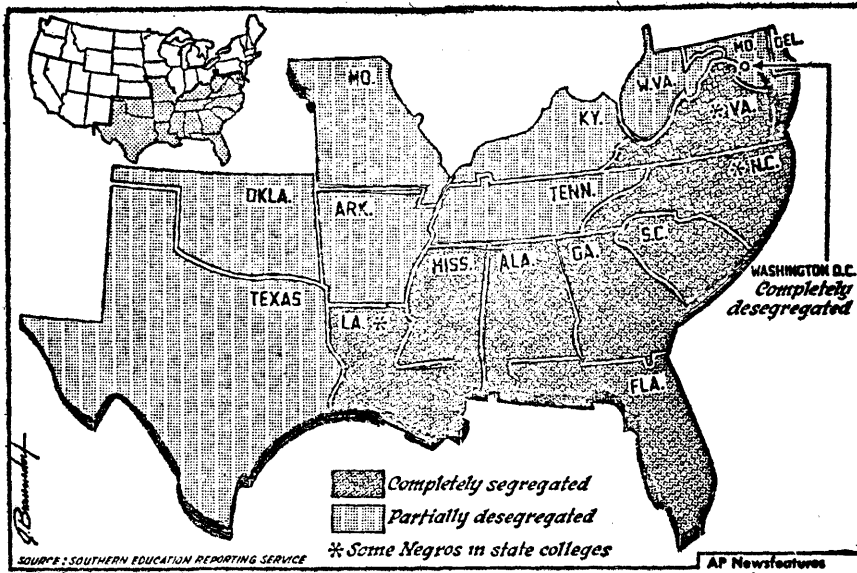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도학 분야의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신문지도에서도 유치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도 삽입은 기사를 쓴 기자나 편집자가 마련하고 있다. 신문 지도의 일반적인 목적은 뉴스에 집중되어 있는 장소를 위치 시키는 것으로 '파괴적인 태풍의 진로', '새로발견된 유전', '광맥의 위치', '교통사고의 도표', '시가지 개편도', '비행기 추락지점', '전쟁의 세력 분포도와 경과', 'UN가입국의 정치적 구분' 혹은 '대통령의 방문 여정', '뉴스의 배경' 등을 나타낸다. 신문 지도제작도 다른 지도제작과 마찬가지로 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 동란중에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다. 전쟁의 세계적인 확대는 독자로 하여금 세계의 지리적인 위치와 전쟁의 경과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지도를 무시해 왔던 많은 신문들이 이 기간동안 지도제작진으로 직업적인 삽화가나 능숙한 복사가를 고용하여 그 결과 지도의 질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독자들은 문자로만 인쇄된 기사에서 보다 전쟁의 경과에 대한 더 나은 개념을 지도로 부터 얻을수 있었다. 이러한 아마추어들의 새롭고 인습에 따르지 않은 지도에

대한 새로운 도안과 상징화(Symbolization)의 시도는 다른 형태의 지도제작에도 이용됨으로써 지도제작을 부흥시켰다.

Emil Herlin, VanghnGray, Lucas Manditch, H.C. Detje, G.Brauns dorf, S. Kohler, Harrison, Antonio Petruccelli E. Francis Brown. Lenz, Blattner, Dr. Erwin Raisz 등이 신문 지도제작 발전에 공헌했다. 이들은 신문 지도제작에 있어서 지형적인 기복을 묘사하는데 hill sketching이나 hachuring을 사용하고 동적인 상태의 묘사를 화살표, 혹은 흑색과 회색의 다양한 색감으로 나타내고 표준투영법(Standard projection), 정사투영법(Orthographic projection) 투시도법(Perspective projection), 방위등거리도법(Azimuthal equidistant projection)등을 실제 사용 발전시켰다.

이들 지도의 지도학적인 스타일은 단순화(Simplification)와 일반화(Generalization)(圖 2)가 잘되어 있고 자원과 생산에 대한 지도는 보통 회화적인 형태이며 이러한 것이 개념화된 폭발적이고 왜곡된 지도들도 간혹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신문 지도 제작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뚜렷한 발전이 없긴 하지만 지도삽입 본래의 목적——기사에 부연하여 명확하고 일목요연한 개념을 주기 위한——에 따라 지도가 빈번히 삽입되어 왔다. 그러나 지도제작 분야의 종사자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리부도에서 복사되어 조잡하거나 지저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圖 2) G. Braunsdorf 가 제작한 AP Newsfeatures 의 지도로서 일반화와 상징화가 고도로 되어있다.

동아일보에서는 1921년 3월 21일 ‘림경업장군이 사패를 바닷다 하는 만주지방 지도와 장군의 화상’이라는 지도를 최초로 삽입했는데 이 지도는 림경업장군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만주지방의 지리적인 위치와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3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며 선정화(Selection)와 일반화(Generalization)가 잘되어 있다. ‘독립을 선포한 의봉고의 首府庫倫附近’(1921. 4. 9), ‘呼倫貝爾略圖’(1928. 8. 25), ‘新麗水 계획도’(1928. 11.2) 등의 지도에서는 지형을 사막은 ‘점점’으로 강은 지류를 따라 ‘선’으로 산은 ‘◎’ 철도는 ‘IIIII’ 혹은 ‘쌍선’으로 표시하였다. ‘문제인 압島の 位置’(1921.4.4) ‘新히 독립을 宣言承認된 波羅의 海岸의 三個共和國,(1922.9.4) ‘最近佛國’이 占領한 루일地域’(1923.3.14)의 지도는 주변 지역의 배경도 아울러 표시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기에 있었던 중국動亂에 관한 여러차례에 걸친 삽입지도에서 신문 지도가 전쟁에 관한 경과나 형세, 대치, 군대의 병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 목적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해방직후에는 특기할 만한 사진이 없었다. 1950년을 전후해서 소련의 민주진영분열 책동은 아시아를 와중속으로 몰고갔다.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남침으로 발발된 한국동란은 지도 삽입의 필요성을 고무하였다.

국내 문제에 지도가 삽입된 것은 도로확장 구역과 공원지대의 구분에 대한 도시계획안, 교통참사지점, 여객선 침몰현장, 장마 水害地區의 도표, 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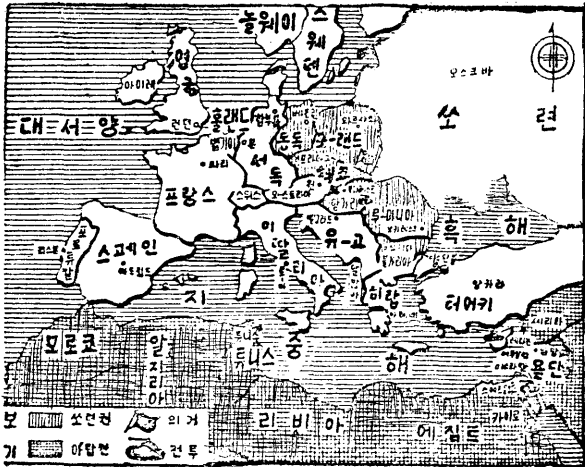
島소개, 어로구역 확대, 월별 어장 분포도와 어류, 雨期의 기압배치도, 철도 연결선 신설도, 남한의 降水量 平年偏差 분포도, 사전현장 약도, 관광 안내도, 한국 광부의 해외 출가, 브라질 이민, 산업 투자지역, 북괴 간첩의 침입루트, 어선의 북괴남치 지점, 주택단지 조성도, 행정구역 변경 투시도, 전국 메스·미디어 현세도, 전염병 발생 현황도, 대통령 후보자의 정치지도(후보자의 우세 지구를 표시)등이다.

신문은 독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면 또는 문화면에 특집란을 두어 많은 문제점들 혹은 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특집란 즉 ‘오늘과 내일’, ‘세계의 뒷골목’, ‘오늘의 세계’, ‘아프리카 통신’, ‘유엔 가입국’, ‘알려지지 않은 이나라 저나라’에 많은 지도가 빈번히 삽입되어왔다(圖3). 특히 1950년 후반기와 1960년 초기의 신생 아프리카 독립국들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리적인 관심’을 고무시켰으며 지도삽입은 이러한 역할을 보조했다.

위와같이 신문 지도제작은 새로운 투영법의 발견이나 시도가 아니고 여지껏 고안 되어온 투영법을 설명하고 지도의 다양한 격자망에 대한 이용과 그 지침길을 지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 ☆

저널의 지도제작에 관한 최대의 번영은 정기 간행물이나, 주간 뉴스 잡지, 월간지등에서 볼수 있다.



(圖 3) 신문지도가 교육의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의 세계라는 특집란에 실림. '소요스런구라파' 1956. 12. 20. 동아

특히 잡지에서는 전통에서의 해방을, 또한 이들 삽화가들은 세계적인 지리학의 공공적인 감각을 제작하는 부담을 지고있다. 신문 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간·월간지 지도제작의 원리와 기술형태도 공통적이다. 잡지의 지도제작자는 일간신문 지도제작자보다 시간적 제한을 덜 받으며 주제와 토픽에 있어서 훨씬 다양하고 색채 사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지도제작도 제 2차 세계대전동안에 절정에 달하였다.

이들 지도는 군사상 혹은 정치적인 정책과 전략에 관하여 실리거나 특수한 지역 또는 문제점이 있는 곳의 배경적인 자료를 보여 주는데 삽입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기행문에 삽입되는 지도는 잡지의 지도제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현대적인 잡지에 있어서 지도제작의 근거는 1930년대이다. 초기의 지도제작은 지도학에 대한 기초 교육이 되지 않은 자유 삽화가들의 기교에 의존되었다. 이들 제작자들은 과학적인 지도제작에는

별 기여한 바가 없지만 지리학과 지도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장려하는데 노력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잡지는 일간신문에 비해 발행이 늦고 활발하지 못하며 특히 지도제작 분야에서는 전혀 발전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동아의 몇몇 호에 기행문, 전쟁 중군기, 土俗 산업의 고장 소개, 정치면 특집등에 지도삽입이 되어 있다.

☆ ☆ ☆

신문 잡지의 지도제작은 다른 분야의 지도제작에 비해 많은 시도와 발전을 도모해 왔지만 아직도 유년기에 속한다. 이러한 지도삽입은 신문과 잡지의 독자들에게 지도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는데 있지 않았으며, 다만 독자들에게 도로에 대한, 전쟁에 대한, 산업에 대한 등등의 개념과, 세계지리를 더 잘 이해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신문과 잡지의 지도는 기존 투영법을 설명하고 사용하며 수세기 동안 조잡하게 축적되어온 지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분야의 지도제작자들은 Orthographic Projection, Azimuthal equidistant projection, Gnomonic projection, Mercator Projection, Perspective projection, Conic projection 등과 같은 투영법을 현대적인 사용에 부활시켰다. 신문·잡지 지도는 교육의 도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즉 지도는 '암시적', '활동적', '동적' 인면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과 잡지의 지도는 보통 소축척이며 상징화와 선정화가 과격하게 되어진다. 또한 디자인, layout, color, 상징, lettering 등에서도 새로운 착상이 고안되었다.

따라서 신문·잡지 분야에서 지도제작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현대적인 르네상스를 경험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학 분야 학자들의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요구되며 아직도 정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4년>

A Study on the Maps in Korean Journals.

Sung Hae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guide for drawing maps, which may be made use of in Korean Journals, by examining the maps in Korean Journals on the cartographical point of view, and by comparing these with those which have been used in foreign journal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analysed the maps in Korean Journals since 1920s comparing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author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 Korea seems to have made little progress in publication, especially of the maps in papers, because, as we know, she was subjected to Japan for a long time and so forbidden to publish papers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for a considerable period after 1930s.

Furthermore, she was in the confusion of the

Korean War in 1950s.

The author hopes that the increase of the scientific study of and the journalists, concern with the maps should be conducive to publishing more accurate maps of Korea in the future.

참 고 문 헌

Erwin Raisz: General Cartography,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48.

Erwin Raisz: Principles of Cartography.

Walter W. Ristow: Journalistic Cartography.

Geography 194(American Congress on Surveying, and Mapping, Vol XVII.

국립건설연구소 : 지도제작 현황, 한미지도제작협정안, 한국화란공동지도제작, 국토개발계획안.

동아일보 : 1920~1928년 축쇄판, 1946~1967년.

신동아 : 1964년 9월~1969년 9월호.